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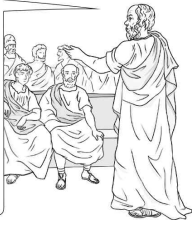
수험 번호

제 [] 선택

1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재물과 명성을 쌓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영혼을 잘 돌보아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無知)를 스스로 깨닫고 참된 앎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참된 앎을 동반하는지 아니면 무지를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 ①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의 수련에 힘써야 한다.
- ② 다수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
- ④ 올바른 삶보다 자연의 본질 탐구에 집중해야 한다.
- ⑤ 참된 앎을 얻기 위해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인(仁)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 서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 능히 ㉡ 예(禮)를 갖추어 겸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엇이 어렵겠으며, 만일 예를 갖추어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보 기 >

- ㄱ. ㉠은 친소(親疏)를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 사랑이다.
- ㄴ. ㉠은 사람됨의 본질로 충서(忠恕)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
- ㄷ. ㉡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 ㄹ. ㉡은 ㉠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으로써 사물을 보면 사물들 사이의 귀천(貴賤)이 없으나,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자기를 귀하다고 하고 상대편을 천하다고 한다. 만물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니, 어느 것이 못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 ① 사물의 가치를 사물의 쓸모 여부에 따라 매겨야 한다.
- ② 도를 체득하기 위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③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시비(是非)를 분별해야 한다.
- ④ 인의(仁義)를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⑤ 미추(美醜), 빈부(貧富)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4. 중세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영원법은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며, 만물은 영원법을 통해 각각 특정한 본성을 부여 받게 된다. 인간의 본성에 반영된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자연법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세속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을: 신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국가를 이루었고, 자신을 멸시하는 신에 대한 사랑이 천상의 국가를 이루었다. 두 국가 중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至福]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 ① 가: 인간은 신의 섭리가 반영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가: 영원법은 자연법에 기초하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을: 지상의 국가에서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
- ④ 을: 자기애를 통해 인간은 천상의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가, 을: 인간은 신의 사랑으로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5.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스승님, '중생이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우쳤는데[頓悟],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닦음[漸修]은 왜 필요한가요?

깨달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習氣]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점진적인 닦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 ① 교(敎)를 중심으로 관(觀)을 병행하는 것이네.
- ②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 나가는 것이네.
- ③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 삼학(三學)에 정진하는 것이네.
- ④ 철저한 고행(苦行)으로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네.
- ⑤ 화두를 활용한 선(禪) 수행으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치[理]가 존재합니다.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각각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지극한 앎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격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각각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효(孝)의 이치를 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갑
  을

- ① 갑: 도덕적 앎은 덕행(德行)을 온전히 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 ② 갑: 격물은 앎을 늘리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 ③ 을: 격물은 마음을 살피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④ 을: 도덕적 앎은 덕행의 시작이고, 덕행은 도덕적 앎의 완성이다.
- ⑤ 갑, 을: 이치는 마음을 떠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인(是認)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선하고, 부인(否認)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악하다.

을: 도덕적 선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이다.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

- ① 갑: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제공한다.
- ② 갑: 선악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③ 을: 동정심에 의해 타인을 돕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 ④ 을: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이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의 근거를 경험적인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

8.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신은 곧 자연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절대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자신과 신, 그리고 사물을 파악하여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나)	제자: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_____

- ① 인격신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② 감각적인 쾌락을 최대한 추구해야 합니다.
- ③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합니다.
- ④ 모든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 ⑤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그것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쾌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다른 것을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A{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오 --> C{C}
                C -- 예 --> Y[을의 입장]
            
```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 ㉠. A: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 ㉡. A: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가?
- ㉢. B: 쾌락의 종류는 질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가?
- ㉣. C: 정신적인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생각하여 멀리 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배나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군대가 있더라도 펼칠 일이 없다. 이웃한 나라끼리 서로 마주 보며,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보기 >

- ㉠. 자연의 이치[道]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 ㉡. 도덕이나 법률로써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 ㉣. 온갖 문명의 이기(利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1.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성(性)을 따르고 정(情)에 순응하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化]와 예의(禮義)를 통한 교도[道]가 반드시 있어야 다스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을: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 보기 >

ㄱ. 갑: 군주는 예법(禮法)을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ㄴ. 을: 군주는 백성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ㄷ. 갑, 을: 군주가 먼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ㄹ. 갑, 을: 군주는 다스림의 궁극적 목표를 부국강병에 두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정직, 근면, 정의도 그것들이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들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	✓		✓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		✓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	✓	✓
선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학문을 혁신하려면 정신을 흥미하게 하는 우상(偶像)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학문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보고 버려야 한다. 이러한 의심을 통해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자명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 ① 갑은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연역적 추론을 진리 발견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③ 을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을은 인간의 사유 능력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경험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가)의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단(四端)은 칠정(七情)을 결합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결합 수 있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하다는 점에서는 사단만 못하다.
 을: 사단과 칠정이 비록 정(情)이기는 하지만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주(主)된 바에 따라 각각 맥락이 있고 그 이름도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분리해 소속시킬 수 있다.

(나)

< 보기 >

- ㄱ. A: 사단이 꾸준한 수양을 통해 생생됨을 간과한다.
 ㄴ. A: 사단은 칠정 가운데 순전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ㄷ. B: 사단과 칠정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간과한다.
 ㄹ. B: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은 항상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에서 결정을 회피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절망에 빠지게 된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
 을: 실존은 본질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자신을 만들어 간다. 미리 결정된 것이 없는 인간은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이 주체적 결정을 통해 신을 따름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윤리 규범에 따라 살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을은 ㉢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 인간이 주체적 선택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불안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할 때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겨도 가서 구해주지 않는다면 인(仁)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인의 예지(仁義禮智)의 네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하다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인의예지의 이름은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 ①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 ②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형구(形軀)의 기호(嗜好)를 지닌다.
- ③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모든 욕구의 억제로부터 비롯된다.
- ④ 인간의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
- ⑤ 인간은 선(善)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덕을 갖출 수 있다.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서양 사람들의 말에는 차례가 없고, 그들의 책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근거도 없다. 다만 자신을 위한 계략이 이루어지기만을 빌 뿐이다.
 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므로 고정할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 ① 갑은 현세에서 이상 사회의 실현(後天開闢)을 주장한다.
- ② 갑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강조한다.
- ③ 을은 보편 윤리인 효제와 오륜(五倫)의 계승을 강조한다.
- ④ 을은 민족의 정체성 자각과 서양 문물의 배척을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서양 종교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갓가지 사물과 현상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緣起]을 우리는 공(空)이라 말하니 이것은 또 임시로 붙인 이름이고 중도(中道)이다. 일찍이 한 가지도 인연을 좇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공 아닌 것이 없다.

< 보기 >

- ㄱ.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 ㄴ. 모든 만물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ㄷ. 있음[有]과 없음[無]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일체가 공임을 깨달아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념으로부터 벗어남[apatheia]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이성[logos]에 어긋나지 않는다.</p> <p>을: 고통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의 제거가 쾌락 크기의 한계이다. 사려 깊은 쾌락이 있는 곳에서는 몸이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이 없다[ataraxia].</p>
(나)	

< 보기 >

- ㄱ. A: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와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ㄴ. B: 정념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거부해야 한다.
- ㄷ. B: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 ㄹ. C: 공적인 삶보다 은둔하는 삶을 지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은 지성적인 것과 품성적인 것 두 종류가 있다. 지성적인 덕은 교육으로 생기고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품성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을: 덕은 영혼의 건강함,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 허약함이다.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 기개, 욕망이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정의의 덕에 이를 수 있다.

< 보기 >

- ㄱ. 갑: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 ㄴ. 갑: 품성적인 덕은 실천적 지혜와 무관하게 습득될 수 있다.
- ㄷ. 을: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 ㄹ.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